

[특집]

2022년에 프란치스코의 ‘사목의 사명(使命)’을 생각하며*

—발에 보물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마태 13,33 참조)—



박 동 호

[서울대학교구 이문동본당 주임·신부]

1. 요한 23세 교종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 1.1.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 the Church in/over the World
 - 1.2. ‘사목’ 공의회 - 진리의 수호와 증진
 - 1.3. 오류에 대(對)하여 - 엄중의 약 vs. 자비의 약(the medicine of mercy)
 - 1.4. ‘일치’ 공의회 - 그리스도인의 일치, 인류 가족의 일치
2. ‘가르쳐 지키게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3.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4.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5.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 5.1.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목적, ‘교회의 내적 쇄신’
 - 5.2.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목적, ‘은 세상의 복음화와 현대 세계와의 대화’
 - 5.2.1. 프란치스코 교종의 ‘시대의 징표 탐구하기’
 - 5.2.2. 프란치스코 교종의 ‘복음의 빛으로 밝혀 해석하기’
 - 5.2.3. 프란치스코 교종의 ‘이성의 빛으로 밝혀 해석하기’
 - 5.2.4. 프란치스코 교종의 ‘대화애의 초대’
 - 5.2.5. 프란치스코 교종의 ‘건전한 영성’
6. 마치며

1. 요한 23세 교종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1.1.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 the Church in/over the World

요한 23세 교종의 60년 전 19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읽어보고 또 읽어본다. 그 연설에서 교종은 피선되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1959년 1월 25일 추기경단 앞에서 “Ecumenical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Council”이란 말이 마치 “하늘의 섬광처럼” “전혀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마음과 입술”에서 튀어나왔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단’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

교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하는 3년의 기간을, “신앙과 종교 생활”,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활력”이 처한 “근대의 조건들”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고찰”한 그 준비의 과정을, “천상 은총”을 드러낸 “표징”이면서 “은사”(a first sign, an initial gift of celestial grace)로 이해한다. 말하자면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과 같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앞으로 진행될 공의회의 그 빛은 교회의 “영적인 부”를 늘리고, 교회는 그 기세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내다보게 될 것”이며, 세상이 요구하는 바로 그곳에서 “최신식으로 적응”(bring up to date)하며, 선의의 모든 이와 대화하고 “상호 협력”(mutual cooperation)함으로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는 믿음을 밝힌다.

교종은 연설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우선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위에 군림(君臨)하는 교회관’,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聖)과 속(俗) 사이의 이분법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배척한다. 그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암흑의 예언자들”(the prophets of gloom)이 주장하는 예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 특히 그는 ‘암흑의 예언자들’이 언제나 재난을 내다보는 그 배경에 주목한다. 그들은 “지난 공의회들의 시대는 그리스도교 사상과 삶에 있어서 또 적합한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a full triumph)의 시대였지만 근대(modern times)는 “속임수와 파멸”의 시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종은 교회가 자리한 근대의 “행복한 환경”(the happy circumstances)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는 여러분이 ‘Ecumenical Council’을 개막하게 된 그 ‘행복한 환경’에 관한 저의 평가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과거, 교회를 방해했던 그 세속적 성격의 많은 장애물에서” 벗어난 조건,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proper religious liberty)라는 “근대의 조건”(new conditions of modern life)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하나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또 다른 길 하나가 있다. 교종은 지상의 교회와 현세 사물 사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전한 긴장(?)과 동시에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각각은 ‘신앙의 빛’과 ‘이성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고 밝힌다. 역사의 무대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깊은 결합, 인류 일치의 도구이며 표지다.

1.2. ‘사목’ 공의회 — 진리의 수호와 증진

“보편 공의회의 가장 큰 관심은 그리스도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교의(the sacred deposit of Christian doctrine)를 더 유효하게 수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교의는 몸과 마음을 지닌 단일한 전 인간(全人)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교의는 또 그 인간에게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순례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교의는 우리의 의무들을 충족시키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께서 세워 놓으신 삶의 목표(천상의 것들)에 도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목은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종은 “이 교의가 개인들, 가족들, 사회생활에 관하여 인간 활동의 제 분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면,” 안으로는 “진리의 거룩한 유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언제나 현재”를, “가톨릭 사도직에 새로운 길을 연, 근대 세계에 소개된 새로운 조건들과 삶의 형태들”을 살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때문에 교종은 ‘교의’와 관련하여 공의회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하나는

“참된 교의가 근대의 연구 방법론과 문학적 양식으로 연구되고 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제시(提示)의 방법”을 찾을 때 “사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목 공의회’라 그 성격을 소개하는 데에는 다음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공의회가 두드러진 취지는 교회의 기본적 교의의 이런저런 구절을 놓고 토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 그런 일을 위해서는 공의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교 정신, 가톨릭 정신, 전 세계의 사도적 정신은 [...] 교의의 침투(a doctrinal penetration)와 의식(意識)의 양성(a formation of consciousness)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 오류(誤謬)에 대(對)하여 — 자비의 약(the medicine of mercy)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중의 약(the medicine of severity)보다는 자비의 약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교회는 오류들을 단죄하기보다는 그 가르침이 지닌 활력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종의 ‘생각’은 말 그대로 ‘사목적’이어서 다음과 같이 근대의 이성에 관한 신뢰를 그 바탕으로 삼는다.

“분명히 배척하고 일소해야 할 그릇된 가르침, 의견, 위험한 개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정직의 올바른 규범(the right norm of honesty)과 대조되어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들이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단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느님과 그분의 법을 경멸하거나 기술적 진보와 삶의 즐거움에 절대적으로 토대를 둔 행복(well-being)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말입니다.”

교종은 근대의 이성이 ‘인격의 최고 존엄’(the paramou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과 그 가치, 그 함축적 의무들을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경험으로 ‘폭력’ ‘전쟁’ ‘정치적 독재’ 등이 인류를 괴롭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긍정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의회가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해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파괴성’과 ‘이기심’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았다고 비판한다.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재앙, 곧 동서(東西)의 이념 대립, 남북(南北)의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상에서 ‘이성의 빛’과 ‘역사의 경험’은 언제나 ‘미완’(未完)의 업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의회의 문헌에 깊숙이 자리한 ‘인간의 자유’는 자칫 일탈할 수 있어, 배타적 권리 주장으로 이어져 또 다른 형태의 ‘불의’를 낳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과 이용권’에 관한 과도한 주장이 ‘타인과 사회를 향한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병리(病理) 현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때 ‘자비의 약’보다는 ‘엄중의 약’이 더 실효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자비의 약’도 필요하고 ‘수술’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세 사물 질서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기쁨과 희망」, 36항 참조) 상호 호혜적 ‘대화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기쁨과 희망」, 제1부 제4장 참조)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는 ‘대화과 협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안들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과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다.

오류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로서 교종은 “종교적 진리의 횃불”을 밝혀 스스로 모든 이의 자애로운 어머니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밝히는데, 그 방식은 ‘가르침’과 ‘모범’이다. ‘가르침’은 활력을 불어넣는 교의의 수원(水源)을 열어 “사람들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들의 고결한 존엄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범’은 카리타스의 생활이다.

“교회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느 곳이나 그리스도교 카리타스(Christian Charity)의 충만함을 펴뜨립니다. 그리스도교 카리타스보다 불화의 씨앗들을 근절하는 데에 더 실효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카리타스보다 협력과 화합, 올바른 평화, 모든 이의 형제적인 일치를 증진하는 데에 더 효과가 있는 힘은 없습니다.”

훗날 「간추린 사회 교리」는 이 그리스도교 카리타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오류와 불의를] 탄핵하고, [진리의 길을] 제안하며, [건전한] 문화·사회 차원의 계획에 투신하도록”(6항) 이끌어 준다고 설명한다.

1.4. ‘일치’ 공의회 — 그리스도인의 일치, 인류 가족의 일치

교종은 ‘진리의 수호와 증진’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탄원’과 ‘사도의 고백’, 곧 ‘일치’의 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설한다. “가톨릭교회는 일치의 위대한 신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데, 그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 전날 저녁에 하늘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로 청한 ‘일치’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1티모 2:4). 그러면서 그 일치를 ‘천상의 빛이 발산하는 삼중 광선’으로 빗대어 설명하는데,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의 일치’, ‘사도좌와 분리된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 ‘비-그리스도교 종교인들과의 일치’가 바로 그 삼중 광선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일치’가 ‘합체’, 곧 ‘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의 일치는 ‘모범’으로서의 일치로, 사도좌와 분리된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는 ‘기도와 열망’에 있어서의 일치로, 비-그리스도교 종교인들과의 일치는 ‘가톨릭 교회를 향한 존중과 존경’에 있어서의 일치로 제시된다. 한마디로,

교종은 ‘양(量)의 증대’가 아니라 ‘질(質)의 고양(高揚)’을 말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조화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의 도구, 일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근거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교종은 제2차 바티칸 일치 공의회 의 목표를 “교회의 가장 좋은 에너지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또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함으로써, 인류의 일치를 향한 경로를 준비하고 또 공고히 하는 데에” 있다고 천명한다.

무려 60년 전, 요한 23세 교종의 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길게 소개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성찰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Ecumenical(Universal) Council”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일치 공의회’라 부르는데, 자연스럽게 ‘누구’와 또는 ‘무엇’과의 일치인가를 묻게 된다. 교종의 연설에는 분명 가톨릭교회 내부의 일치, 갈라진 형제들과의 일치, 더 나아가 ‘인류의 일치’라는 삼중 광선의 빛으로 이해하면서, 무엇보다도 ‘양의 증대’가 아니라, ‘질의 고양’을 주문(注文)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ecumenical’을 ‘교회 일치’의 정도로 이해하면서, 또 그 ‘대상’도 ‘갈라진 형제들’ 곧 ‘개신교 신도’[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개신교 신도’라는 용어 대신, ‘하느님 백성’으로서 ‘비-가톨릭 그리스도인(non Catholic Christians)’으로 부른다]에 제한 또는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의 일치’는 혹시 몇몇 제한된 규칙들에 기반한 ‘단조로운 획일’로 비추지는 않는지도 살펴야겠다. 비-그리스도교 종교인들과의 관계가 ‘존중과 존경’의 태도로 드러나는지도 성찰하게 된다. 어쨌든 ‘ecumenical’이든 ‘universal’이든 그것은 ‘갈라진 형제와의 일치’보다는 ‘광의(廣義)의 서술임은 분명하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화’(福音化, evangelization)와 ‘토착화’(土着化, inculturation)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교종의 연설에서나

공의회에서는 명시적으로 ‘복음화’나 ‘토착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의회 이후 이들 용어는 교회의 ‘임무와 사명’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또 빈번하게 등장했다. ‘복음화’와 ‘토착화’는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개인으로서든 단체로서든 사람들이 삶을 꾸려가는 맥락으로서의 ‘사회’, 또 그 사회의 관습, 제도, 법, 질서 등 세상 곳곳에 복음적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화’와 ‘토착화’는 상당 수준으로 축소 또는 왜곡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토착화’의 경우는 ‘전례의 특정 문화적 양식 적용’(예를 들어, 음악, 의복 등) 정도로, ‘복음화’는 ‘신자의 숫자’와 ‘인구수 대비 신자 수’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가 ‘세상일’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여하는 그 자체에 관해, 또는 그 방식에 관해 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분분한 우리 현실을 다시 성찰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사목’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목’은 교의를 관통시키는 것, 의식을 양성하는 것(의식화, 意識化)에 있어서, 지나치리만큼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聖)과 ‘속’(俗)의 분명한 구분을 토대로, 이른바 ‘성’(聖)으로 여기는 영역에 관한 ‘교의’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만을 ‘사목’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거룩한 전례’와 몇몇 교회 안의 신심 활동으로, 교의(진리)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하느님’에 관한 진리로 그 가르침으로 제한하는 것을 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사회와 그 생활(문화, 경제, 정치 등)’, ‘인간과 인간의 활동’, ‘인간들, 또는 집단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무대, 맥락, context)으로서의 ‘사회’와 ‘역사’는 마치 ‘사목’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2. ‘가르쳐 지키게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4회기에 걸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네 현장과 아홉 교령과 세 선언, 모두 열여섯 문헌을 그 결실로 낳았다.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거룩한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1962.12.4.)
-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1964.11.21.)
-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1965.11.18.)
-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1965.12.7.)

-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
(*Inter Mirificat*, 1962.12.4.)
-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
(*Orientalium Ecclesiarum*, 1964.11.21.)
-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Unitatis Redintegratio*, 1964.11.21.)
-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Christus Dominus*, 1965.10.28.)
-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Perfectae Caritatis*, 1965.10.28.)
-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
(*Optatam Totius*, 1965.10.28.)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11.18.)
-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Ad Gentes Divinitus*, 1965. 12.7.)
- 사제의 교역과 생활에 관한 교령 「사제품」
(*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Gravissimum Educationis*, 1965.10.28.)
-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 「우리 시대」
(*Nostra Aetate*, 1965.10.28.)

-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Dignitatis Humanae*, 1965.12.7.)

위의 열여섯 문헌 가운데, 특히 네 헌장은 각각 “우리 시대의 오류, 요구, 기회를 고려하면서”, ‘전례의 증진과 쇄신’(the renewal and fostering of the liturgy)에 관하여, ‘교회의 신비, 교회의 본질과 보편 사명’(the mystery of the Church, nature and encompassing mission of the Church)에 관하여, ‘하느님의 계시와 그 전달’(the divine revelation and its being handed on)에 관하여,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현존과 활동’(the presence and activity of the Church in the world of today)에 관하여, 교회가 믿는 것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양식” 곧 보편 공의회 ‘헌장’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普遍, universal) 공의회든, ‘헌장’(憲章, constitution)이란 문서 형식이든, 그 무게는 개별(個別, local) 주권국가의 ‘헌법’(憲法, constitution)이 지닌 무게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훨씬 무겁다.

이 네 헌장은 대략 교회의 믿음(「하느님의 말씀」과 「인류의 빛」)을 가르쳐 지키게 한(「거룩한 공의회」와 「기쁨과 희망」) 것으로서 서로 불가분리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문헌의 제목에서 그 성격을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인류의 빛」은 ‘교의’(敎義) 헌장이며, 「기쁨과 희망」은 ‘사목’(司牧) 헌장이지만, 각각의 문헌은 교의의 성격과 사목의 성격을 모두 담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의 경우, 그 제목에는 ‘교의’나 ‘사목’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공적 예배인 ‘전례의 증진과 쇄신’을 위한 문헌인 만큼 당연히 ‘교의’와 ‘사목’의 성격을 담고 있다. 굳이 ‘교의’와 ‘사목’의 성격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사목’을 ‘전례의 거행’ 또는 ‘헌장’에 종속된 하위(下位)의 ‘몇몇 규칙들’의 준수 정도의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에 집중하여 성찰하는 이 자리에서는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의 목차만 소개한다. 우선 「인류의 빛」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교회의 신비
- 제2장 하느님의 백성
- 제3장 교회의 위계 조직, 특히 주교직
- 제4장 평신도
- 제5장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
- 제6장 수도자
- 제7장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천상 교회와 그 일치
- 제8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I. 서론
 - II. 구원 계획과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
 - III. 복되신 동정녀와 교회
 - IV. 교회의 복되신 동정녀 공경
 - V.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공지
- 사전 설명 주석

참고로 이 문헌의 성격과 그 분량을 놓고 볼 때, 제8장은 어색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교회의 마리아에 관한 믿음이나 그 공경에 관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다. 교회 일부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이른바 ‘공동 구속자(救贖者, 救世主, co-redeemer)인 마리아’에 관한 ‘교의’를 선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공의회를 구상하고 개막했던 요한 23세 교종이나 폐막한 바오로 6세 교종은 물론 공의회 교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교의를 놓고 토의하거나 새로운 교의를 선포하는 공의회가 아니라 ‘사목(이미 선포되고 널리 알려져 익숙한 교의를 ‘시대에 맞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공의회’였기 때문이다. 대신 준비된 ‘마리아’에 관한 문헌을 ‘교회’에 관한 문헌에 덧붙임으로써, ‘교회에 관한 교의’라는 맥락에서 제시하려 했지만, 결국 어색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 교회 생활 일부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 공경’에 관한 ‘과도함’

때문이다. 그 열정적 ‘믿음과 공경’은 때때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실질적(?) 구속자(救贖者)로 보이게 한다.

「인류의 빛」은 「기쁨과 희망」과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영속적인 교회의 본질(신비)과 보편사명은 추상적 개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현대 세계, 시공(時空)의 역사적 무대에서] 그 “현존과 활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류의 빛」이 세상 안에서 교회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고백한 현장(교회는 누구인가(who)?)이라면 「기쁨과 희망」은 이 ‘지금(현대) 여기(세계)서 그 교회의 임무를 밝힌 현장(교회는 무엇인가(what)?)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신비를 더욱 깊이 고찰한 다음, 이제 교회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곧바로 인류 전체를 향하여 말하며,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현존과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이에게 밝히고자 한다”(「기쁨과 희망」, 2항).

「기쁨과 희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서 론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제1장 인간의 존엄

제2장 인간 공동체

제3장 전 세계의 인간 활동

제4장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임무

제2부 몇 가지 긴급과제

제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제2장 문화 발전의 촉진

제1절 현대 세계의 문화 상황

제2절 올바른 문화 발전의 원리

제3절 문화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긴박한 임무

제3장 경제 사회 생활

제4장 정치 공동체 생활

제5장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제1절 전쟁 회피

제2절 국제 공동체의 건설

맺음말

공의회에 열여섯 문헌 가운데 그 제목에 특별한 설명을 덧붙인 문헌이 있는데, 바로 「기쁨과 희망」이 그것이다.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구성된 단일한 문헌이다(it constitutes an organic unity).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현장이 “사목” 현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교의(교리) 원칙(doctrinal principles)을 바탕으로 하면서, 교회가 세계와 근대의 인류와 맺는 그 관계를 표현하려(to express the relation of the Church to the world and modern mankind)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편으로 제1부에는 사목의 관점(a pastoral slant)이, 다른 한편으로 제2부에는 교의의 관점(a doctrinal slant)이 있다. 제1부에서, 교회는 인간(man),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그 세계(the world which is the enveloping context of man's existence), 그리고 인간이 동료 인간들과 맺는 그 관계들(man's relations to his fellow men)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전개한다. 제2부에서, 교회는 근대의 생활과 인간 사회(modern life and human society)의 여러 측면에 관해 좀 더 깊이 고찰한다. 특히 우리 시대, 근대 생활과 인간 사회의 일반 영역에서, 한층 더 긴급하게 보이는 문제들과 과제들(questions and problems)에 관해 고찰한다. 따라서 제2부에서, 교의(교리) 원칙(doctrinal principles)의 관점에서 바라본 각 분야의 주제(the subject matter)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요소들은 영구적인 가치(a permanent value)를 지니며, 어떤 요소들은 일시적인 가치(a transitory value)만 지닌다. 그러므로 이 현장은 신학적 해석의 일반 규범(the general norms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자들은 반드시 — 특히 제2부에서는 — 각각의 주제가 그 본성으로 연루된 가변적 환경(the changeabl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설명을 덧붙인다. 「기쁨과 희망」은 공의회 폐막일인 1965년 12월 8일을 하루 앞둔 12월 7일에 반포되었다. 그만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며, 또 그

만큼 많은 숙고와 토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각 따로 준비된 두 부분, 제1부와 제2부를 하나로 결합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은 교회의 성격과 사목의 성격에서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요소를 담은 문헌을 보편 공의회의 ‘헌장’의 형식으로 공표하는 일에 따르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회는 현세 사물(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분야와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는 교회의 그 사명과 책임, 곧 ‘사목’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우선 제1부에서 다룬 주제들, 곧 인간, 인간 사회, 인간의 활동, 인간과 동료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교의로 다루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근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적 발달, 심리학이나 사회학 또는 역사학 등의 발달이 이룬 성과들뿐만 아니라, 이 학문적 발달이 계속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했다. 인류는 ‘이성의 빛’ 속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때문에, 인간, 사회, 인간의 활동,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teaching)임에도 그것을 영속적 진리를 담은 ‘교의(교리)’라 하지 않고, “교의(교리) 원칙”(doctrinal principles)을 바탕으로 한 “사목의 관점”(a doctrinal slant)이라 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존엄은 불변하는 영속적 진리이지만, 그 존엄이 실현되는 방식, 또는 그 존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인권들’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초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은 경제 분야에서는 ‘소유의 권리’로, 정치 분야에서는 ‘자유의 권리’로, 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의 권리’로, 사회 분야에서는 ‘복지의 권리’로 ‘표현’될 수 있다. 또 ‘공동선’은 사회에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그 역시 경제 분야에서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그 사용의 권리’로, 정치 분야에서는 ‘능동적 참여와 연대, 또는/또 보조성의 원리’로, 무엇

보다도 사회생활에 있어 ‘사회적 약자 최-우선성의 원리’로서 ‘실현’될 수 있다.

제2부에서 다룬 주제(분야)들, 곧 혼인,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국제 공동체, 평화 등의 분야와 각각의 분야에서 다룬 주제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제2부의 제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을 예로 삼아도 금세 이해할 수 있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 영구적 가치를 지니는 요소들(예를 들어, 혼인의 불가분성과 단일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존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경제, 정치, 문화적 요소들)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며 또 그 때문에 일시적 가치를 지니는 요소들도 그 안에 많을 수밖에 없다. 제2부에서 현세 사물을 다루면서도, 또 안에서 다룬 여러 주제에 관한 그 가르침 안에 교회의 관점(a doctrinal slant)이 담겨 있다고 한 배경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한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공동선’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부부에게는 성숙한 인격 곧 상호 존중과 배려와 헌신이 요구되는데, 그 인격적 성격들은 그 부부가 몸담고 성장한 ‘사회’의 조건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문화적 타락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혼인과 가정의 존엄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합리적으로 또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문헌 전체에서 ‘영속적 가치’를 지닌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위에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 안에 부여하신 ‘현세 사물의 질서(공동선)’, 하느님의 카리타스가 가능케 하는, 인간과 동료 인간들 사이의 ‘상보적 사랑의 형제관계(형제애)’와 인간 활동에 있어 ‘자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의 제2부에서 다루는 혼인과 가정, 경제, 문화, 정치, 국제 공

동체 등의 제 분야에서는 하느님께서 그 안에 부여하신 영속적 질서(예를 들면, 자연법의 질서)와 그 질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여러 가변적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그렇지만 영속적 질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계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곧, 올바른 경제 질서는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과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공동선’을 지향해야 마땅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심각한 불평등과 대규모의 빈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의 영속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 근본 원인을 신자유주의 이념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관’과 ‘세계관’에 있어 심각한 왜곡에서 찾는다. 곧 그 자체로 목적이며 토대여야 할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전락시켜 뿌리부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는 것, 세계 또는 사회를 ‘이해관계’ 집단의 기계적 총합 또는 다툼의 장(場)으로 보아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 대신에 ‘힘’이 지배하는 곳쯤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속적인 요소 곧 교의(교리)의 요소를 가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공의회 교부들이 두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헌으로, 그것도 ‘헌장’의 형식으로 제시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일까? 헌장에서 직접 밝힌 대로, 바로 인간(인류)에의 복무(An Offer of Service to Humankind), 인류 가족을 향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이 그 동기이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증언하고 제시하는 공의회는 그러한(고뇌에 찬)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인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들을 복음에서 이끌어 낸 빛으로 비추어 주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그 창립자에게서 받은 구원의 힘을 인류에게 풍부히 제공함으로써, 그 백성이 들어 있는 온 인류 가족을 향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기쁨과 희망」, 3항).

물론 이는 「인류의 빛」에서 고백한 다음과 같은 ‘교회의 신비’에

서 나온 것이다.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마르 16,15 참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다”(1항).

3.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폐막 20주년에 즈음하여 열린 198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총회의 건의 곧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망라하는 교리서나 그 개요서의 편찬”의 건의를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받아들여, 그 편찬의 과정을 거친 후 공의회 개막 30주년 곧 1992년 그의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 반포와 함께 최초의 프랑스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발행되고, 그 후 1997년 교황 교서 「큰 기쁨」(*Laetamur Magnopere*) 반포와 함께 라틴어 표준판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승인되고 공포되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은총과 영적 결실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서 더욱더 일치하며, 그 이해와 적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신앙의 유산」). 전체 4편으로 구성된 교리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편 신앙고백

제1부 “저는 믿나이다” - “저희는 믿나이다”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1부 성사의 경륜

제2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1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1장 인간의 존엄

제2장 인간 공동체

제3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1절 도덕률

제2절 은총과 의화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제2부 십계명

제1장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제2장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1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제2부 주님의 기도 “우리 아버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겠으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네 헌장을 ‘교리’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서’이니 자연스럽게 ‘기도’에 관한 교리와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을 그 기초로 하였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1편 ‘신앙고백’은 공의회의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에,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 각각 맞닿아 있다. 앞에서 인용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단순히 분리하자면, 제1편, 제2편, 제4편은 ‘신앙’에, 제3편은 ‘도덕’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위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목차에서 특히 제3편은 각 부(部)뿐만 아니라 각 장(章)의 제목까지도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구조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제목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면, ‘인간의 소명’ ‘인간 존엄’ ‘인간 공동체’는 두 문헌의 제목까지 같다. 「기쁨과 희망」의 제1부 제3장 ‘전

세계의 인간 활동'과 제4장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임무' 부분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제1부 제3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1절 '도덕률', 제2절 '은총과 의화(義化)',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에 연결된다. 「기쁨과 희망」의 제2부 '몇 가지 긴급과제'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제2부 '십계명'의 제2장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에 상관한다. 그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한다.

“난폭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 수단을 택하는 복음의 사랑을 증언하는 이들이다. 여기에는 다만 타인과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06항).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참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평화를 간구하고 건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똑같은 정신으로, 권리 주장에서 폭력 행위를 거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약자에게도 주어지는 방위 수단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기쁨과 희망」, 78항).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찬반(贊反)의 논란을 일으키는 현안, 이른바 '군 대체복무'(軍 代替服務)에 관한 내용이다.

4. 「간추린 사회교리」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정의평화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의 정신에 따라 보편 교회 안에 설치된 기관들 가운데 하나이다.

“공의회는 아직도 인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빈곤을 고려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도록 보편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여긴다.

이 기관의 임무는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증진하도록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이다”(「기쁨과 희망」, 90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2004년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를 펴낸다. 서문과 결론과 함께 3부 12장으로 구성된 교리서의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본주의

제1부

제1장 인류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

제2장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

제3장 인간과 인권

제4장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

제2부

제5장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가족)

제6장 인간 노동

제7장 경제생활

제8장 정치 공동체

제9장 국제 공동체

제10장 환경 보호

제11장 평화 증진

제3부

제12장 사회교리와 교회 활동

I. 사회 분야의 사목 활동

II. 사회교리와 평신도의 참여

결론: 사랑의 문명을 위하여

목차를 보더라도 이 「간추린 사회교리」 역시 그 구성이나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을 토대로,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토대로 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 그 분야나 내용에 있어 더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사회교리’와 ‘환경 보호’이다. 물론, ‘인간 노동’을 따로 한 장(章)에 걸쳐 가르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주려 한다(「기쁨과 희망」, 4항 참조)는 점에서 ‘환경’과 ‘노동’은 교회가

응답해야 할 ‘고뇌에 찬 문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쁨과 희망」에서 ‘환경 보호’ 현안을 검토하고 숙고하지 않은 것은, 공의회 당시(1962~65) 세상에서 이른바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현안이 인류에게 ‘고뇌에 찬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추린 사회교리」의 내용은 앞의 「가톨릭교회 교리서」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예를 들어, 공의회의 「기쁨과 희망」의 제2부의 제3장 ‘경제 사회 생활’과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제2부 제2장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의 곳곳에서 제시되는 ‘경제’와 관련한 ‘교리’가 「간추린 사회교리」의 제2부의 제6장 ‘노동’과 제7장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해석되고 제시되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그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한다.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정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동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34항).

이 교리가 배치된 자리는 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를 다룬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제2장 제7절 ‘일곱째 계명’이다. 위 내용은 이른바 ‘계약 임금’과 ‘실질 임금’(적정 임금)에 관한 교리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앞의 ‘군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다. 이 교리와 관련하여, 「간추린 사회교리」는 “적정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되며, 본질적 정의가 계약의 자유에 우선하며 그 우위에 있기 때문”(303항)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단순히 ‘생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치들의 위계’ 차원에서 도 ‘임금’을 성찰한 것이다. 이는 곧 ‘지나치게 과한 임금’에 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지나치게 과한 임금’ 역시 ‘불의’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상식이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또는 한 작업장 내의 심각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그 원인에 관하여, ‘도덕’의 차원에서 성찰하자면, 그것은 ‘가치들의 잘못된 위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계약의 자유’가 ‘본질적 정의’에 우선하며 그 우위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굳이 요한 23세 교종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 가운데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 「가톨릭교회 교리서」, 그리고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의 「간추린 사회교리」를 소개한 배경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과 그 가르침의 권위(teaching authority)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교종은 교회의 사목에 지극히 충실할 따름이다. 특히 교종은 “고뇌에 찬 문제들”(「기쁨과 희망」, 3항)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교종의 문헌과 담화들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뇌에 찬 문제들’에 그동안 무관심한 탓일 수도 있으나, 누구도 알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마치 ‘보물’을 오랫동안 발에 묻어놓은 것처럼.

둘째, 거꾸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그의 가르침이 낯설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임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사목’ 곧 ‘게시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목’에 있어, 우리는 사회가 겪고 있는 ‘고뇌에 찬 문제들’을 ‘이미’ 초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어서다. ‘초월’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표현이 적절하다면 ‘사목’의 ‘환원’(축소, reductionism)이 또는 ‘사목’에 있어 사목 ‘현장’의 누락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어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을 살펴보기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몇 대목을 소개한다.

「기쁨과 희망」은 ‘사목’의 목적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인간의 숭고한 소명을 천명하고 인간 안에 숨어있는 신적인 어떤 씨앗을 긍정하며, 이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형제애를 증진하고자 교회의 성실한 협력을 제공한다. 교회는 결코 현재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 곧 성령의 인도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재와 내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3-4항).

‘사제의 교역과 생활에 관한 교령’ 「사제품」은 다음과 같이 사목의 목표를 밝히고 사제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 쇄신과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대화라는 사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제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교회에서 권장하는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제들은 언제나 더 높은 더 성덕을 향하여 매진하고,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봉사하는 날로 더욱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12항).

“현대 세계의 상황에서 사제들의 설교는 흔히 매우 어려운 일이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 한다”(3항).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은 본당의 역할과 평신도의 사도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다. 본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인간적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 이를 교회의 보편성에 융합시킨다.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

하여야 한다”(10항).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다”(「인류의 빛」, 1항).

위에서 표징(表徵, sign)은, ‘성사’의 의미로 이해하면, 한자의 表徵(겉에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이겠으나, 영어의 ‘sign’에는 ‘길잡이’라는 의미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길잡이’ 역할에 내포된 엄중함 때문이다. 길잡이의 역할을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길잡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길잡이를 따라가는 모든 이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도구(道具, instrument) 역시 마찬가지다. 도구는 ‘연장’이나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를 지닌다. ‘연장’이 제대로 사용되면 ‘이기’(利器)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최악의 경우 ‘흉기’(凶器)로 전락할 수도 있다. ‘수단 또는 방법’도 그렇다. 사목을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5.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프란치스코 교종의 문헌들 가운데 특히 ‘오늘날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관한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um Gaudium*, 2013.11.24), ‘우리의 공동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한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그리고 ‘형제애(관계)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10.3)은, 각각의 문헌마다 그 초점이 다르지만, 저마다 “교회의 내적 쇄신과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대화라는 사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사제품」, 12항)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교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5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공의회의 현장 「인류의 빛」에 비추어 「교회의 내적 쇄신」을 촉구한다. 교종은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긴박하고 엄중하며 거대한 위기, 곧 생태 위기를 극복할 ‘생태적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새로운 국제 공동체 건설과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다.

앞에서 소개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의 “고뇌에 찬 문제들”(3항) 가운데 하나로 교종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의 위기’(인간과 사회와 창조 세계의 총체적 위기)를 ‘주목’한다. 이는 표현 그대로 ‘새로운 사태’라 할만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다룬다. 실제로 교종은 이 위기를 “핵전쟁의 벼랑 끝”(3항)에 빚달 정도로 그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한다.

또 양극(兩極)의 냉전(冷戰) 해체 이후 오늘날 다극(多極)의 세계화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강대국들의 ‘국가주의’(nationalism)의 발흥과 빈번한 무력 충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의 세계 지배가 초래한 ‘심각한 불균형’과 대규모 빈곤화와 이민과 난민 현상, 문화적으로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문화 식민주의’의 등장 역시 서로 결합한 ‘새로운 사태’라 할 만하고 이를 교종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다룬다. 이 ‘새로운 사태’를 교종은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dark clouds)’(참조: 제1장 요한 23세의 개막 연설 ‘슬픔과 시련의 구름’)이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독자들의 의식화를 돕는다.

교종은 이러한 ‘새로운 사태들’을 ‘관찰하고’ ‘성찰하며’ ‘행동의 노선’을 제안하면서 대화에 선의의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교종은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응시켜”(「사제품」, 3항) 설명하기 위하여, 「기쁨과 희망」이 제안하는 방법론을 따른다. 곧,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뇌에 찬 문제들”(「기쁨과 희망」, 3, 4항)에 관해 그 답을 찾으려 선의(善意)의 모든 이와 대화를 모색한다. 「간추린 사회교리」가 제시한 방법론을 — 식별, 판단, 결정의 체계적 접근법을 — 따른다고 할 수도 있다. “교회의 사회교리를 설명할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시해야 한다. 식별과 판단과 결정(discernment, judgement, decisions)이 실재에 부합될 수 있게 하고, 복합적인 현행의 정세에 연대와 희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9항).

5.1.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목적, ‘교회의 내적 쇄신’

특히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5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에 비추어 ‘교회의 쇄신과 적응’을 권고하고 있는데, 교종의 ‘사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교종은 ‘신앙의 유산’(또는 ‘신앙의 원천’)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발전시키면서,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용하여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 다음은 권고의 목차다.

복음의 기쁨[1~18항]

제1장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탈바꿈[19~49항]

(the Church’s Missionary Transformation)

제2장 위기에 놓인 공동의 헌신(투신)[50~109항]

I. 오늘날 세상이 [인류와 교회에] 제기하는 도전(위기)들

II. 사목 활동가가 직면한 유혹들

제3장 복음 선포[110~175항]

I. 복음을 선포하는 전체 하느님 백성

II. 강론

III. 가르침의 준비(Preparing to Preach)

IV. 복음화와 케리그마(the Kerygma)에 관한 더 깊은 이해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176~258항]

- I. 공동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의 차원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케리그마
- II. 사회 안에 포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
- III.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공동선과 평화
- IV. 평화의 실현에 공헌하는 [교회의] 사회 차원의 대화

제5장 성령으로 충만한(혼을 담은) 복음화 활동가[259~219항]

- I. 쇄신된 추동력이 필요한 복음화 사명 수행
- II. 마리아, 복음화의 어머니

문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종이 교회의 ‘탈바꿈’을 호소한 배경은, 한마디로 ‘사목 활동’의 불충실함이라 할 수 있다. 곧, ‘신앙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고뇌에 찬 문제들’(권고의 제2장 참조)에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기쁨과 희망」, 4항)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류의 빛」이 고백한 ‘표징과 도구’(1항)를 염두에 두고 성찰하면, ‘길잡이’, ‘연장’과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합당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묻고 있다. 제2장의 I ‘오늘날 세상이 [인류와 교회에] 제기하는 도전(위기)들’은 그 반증이라 할 수도 있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야 할 곳이 여전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상황이 그 정도와 규모에 있어 확산하고 또 깊어지고 있음은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복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여전히 빛이 충분히 밝지 못하고, 소금이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누룩이 반죽을 제대로 부풀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쇄신’을 생각하면, 제2장의 II ‘사목 활동가들이 직면한 유혹’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는 ‘유혹’이라 했지만, 그 내용은 통렬한 반성이며 견책(譴責)이기도 하다. 쇄신이나 개혁은 혼

히 지도층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이롭도록 구조화된 사회 구조(생활)를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 ‘차등 책임의 원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모색할 더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의 무게를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목 활동가에게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복음화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이시고, 그 협력자는 하느님 백성이며,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목자는 그 하느님 백성에 ‘말씀의 복무(봉사)자’로서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3장 ‘복음 선포’는 ‘하느님 백성’ ‘강론’ ‘가르침의 준비’의 순서로 배열, 구성되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이다. 요약하면, 강론이든 교리 교육이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는 언제나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용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생활환경이란 「기쁨과 희망」에 따르면, 가정, 문화, 경제, 정치, 국제 사회(공동체) 따위의 환경(사회적 맥락)을 말하는 것이며, 「간추린 사회교리」에 따르면, 여기에 더하여 ‘창조(자연) 환경’의 조건까지 그 맥락이 확장된다. ‘복음의 영원한 진리’는 개별 인간의 마음과 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곳곳에 침투할 힘이며, 곳곳을 밝힐 빛이다. 교회와 직무 사제직은 부정적으로는 그 힘을 ‘단단한 용기’에 가두지 말아야 하고 그 빛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능동적으로는 그 힘을 곳곳에 전달해야 하며, 그 빛을 언제 어디서나 반사(反射)해야 한다.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봉사하는 도구”(「사제품」, 12항)다. 참고로 ‘하느님 백성’은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갈라진 형제들, 다른 종교인들, 더 나아가 ‘선의의 모든 사람’이다(「인류의 빛」, 23~16항 참조).

‘mission’의 우리말 번역에 관한 것도 덧붙여야 하겠다. 문헌의 문맥에 따라 ‘선교’로도 ‘사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

명'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말 교회 문헌에서는 대부분 '선교'로 옮기는데, 이 '선교'(宣敎)는 대개 좁은 의미, 곧 '종교를 전하여 널리 펼침'의 뜻 정도로 통용된다. 하지만 '사명'(使命)은 맡겨진 임무로서 자의(自意)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義務)의 뜻이 담겨 있다. 그 의무에는 자연스럽게 책임(責任)이 수반(隨伴)된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를 '사명'이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복음화'에 관해서 덧붙여야 할 내용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질'의 성격을 담은 표현이지 '양'의 성격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우 너무나 빈번하게 그 '양'(量)의 성격으로 '복음화'란 용어가 사용된다. 마치 양의 증대가 질(質)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 말이다.

‘사목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의 내적 쇄신’에 이어, ‘온 세상의 복음 전파’와 ‘현대 세계와의 대화’를 살펴보자. 교종의 세 문헌 전체를 필자 나름대로 ‘시대의 징표 탐구하기’, ‘복음의 빛으로 밝혀 해석하기’, ‘이성의 빛을 밝혀 해석하기’와 ‘대화와의 초대’ ‘건전한 영성’으로 나누어 그 목차만을 차례차례 소개한다. 그것으로도 교종이 지닌 ‘사목’의 정신과 태도, 현안(懸案)과 그 내용(가르침)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5.2.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 목적 — ‘온 세상의 복음화와 현대 세계와의 대화’

5.2.1. 프란치스코 교종의 ‘시대의 징표 탐구하기’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제2장 위기에 놓인 공동의 헌신(투신, 책임)[50~51항]

1. 오늘날 세상이 [인류와 교회에] 제기하는 도전(위기)들[52항]
[경쟁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는
거부합시다[53~54항]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합시다[55~56항]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기는커녕 지배하는 금융 체제를
거부합시다[57~58항]
폭력을 양산하는 불평등을 거부합시다[59~60항]
몇몇 문화적 도전들[61~67항]
신앙의 토착화는 도전받고 있습니다[68~70항]
도시문화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71~75항]

- II. 사목 활동가가 직면한 유혹들[76~77항]
복음화 사명의 영성이라는 과제에 응답합시다[78~80항]
이기심과 정신적 나태를(무기력함을) 거부합시다[81~83항]
헛된 염세주의를 거부합시다[84~86항]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입니다[87~92항]
영적인 세속성을 거부합시다[93~97항]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거부합시다[98~101항]
교회 안에는 다른 도전들도 있습니다[102~109항]

복음화 과정에 반(反)하는 현상을 교회 안팎에서 찾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경제, 금융 체계’를, 교회 안에서는 ‘사목자’들의 삶과 태도를 ‘고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교회 안팎에서 ‘찬반’(贊反)의 논란을 일으키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다.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 제1장 지금 우리의 공동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17~61항]
I. 오염과 기후변화[20~26항]
오염, 쓰레기(폐기물), 내다 버리는 문화[20~22항]
공동 재화로서의 기후[23~26항]
II. 물과 관련한 현안[27~31항]
III. 생물의 다양성 상실[32~42항]
IV.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의 붕괴[43~47항]
V.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48~52항]
VI. 빈약한 응답들[53~59항]
VII. 의견의 다양함[60~61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의 재앙은 ‘자연환경’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한 몸처럼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는 ‘인간과

사회(IV)와 창조 질서(I, II, III)’ 전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자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쯤으로 회칙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어쩌면 회칙이 재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는 ‘과학 기술’에 관한 낙관적 신뢰를 바탕으로 일탈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기존의 ‘사회적 진보’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제1장 폐쇄된(단편)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暗雲, 먹구름)[9항]

산산이 깨어진 꿈들[10~12항]

역사에 관한 의식(자각)의 종말[13~14항]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15~17항]

“[다른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세계[18~21항]

불충분하게 보편적(일반적)인 인권들[22~24항]

갈등(충돌)과 두려움[25~28항]

공유(공동) 로드맵(도로 지도)이 없는 세계화와 진보[29~31항]

역사 안의 팬데믹(유행병)들과 다른 재난들[32~36항]

국경선 위에 부재(不在)한 인간 존엄[37~41항]

통신(소통, 疏通. 커뮤니케이션)의 환상[42~43항]

뻔뻔한(파렴치한) 침범[44~46항]

지혜 없는 정보[47~50항]

굴종과 자기 경멸의 형태들[51~53항]

희망[54~55항]

회칙이 ‘형제애(관계)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적(individual), 인격적(personal), 사적(private)인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회칙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communal), 사회적(social), 공적(public) 차원의 접근과 태도로 ‘폐쇄된 세계’를 진단하며,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제안한다.

교종은 ‘왜 시대의 징표를 탐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또 그것이 ‘왜 막중한 책임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정리한다.

“동시대의 실재를 자세히 그리고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이 교종의 과제는 아니지만, 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시대의 징표들을 꼼꼼하게 탐구하기를” 권고합니다. 사실 이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실제 현행의 어떤 실재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탈인간화(dehumanization)의 과정들을 밟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구별은 [시대] 정신들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정신의 움직임들을 선택하고 악한 정신의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복음의 기쁨」, 51항).

동시대의 실재는(reality) 무수히 많다. 인간과 그 존엄, 사회와 공동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실재’이며, 사회에 있어서도 가정, 경제, 정치, 문화,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연법적 질서’도 실재이며,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도,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공동체’도 실재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창조물’ 역시 ‘실재’로 파악한다. 이 실재를 서술하거나 표현한 것을 교종은 ‘idea’로 이해하며, 언제나 ‘실재’는 그 ‘idea’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경제(살림살이)가 하나의 ‘사회생활’의 한 실재라면, ‘자유주의 경제 모델’이나 ‘사회주의 경제 모델’은 그 실재를 설명하거나 드러내는 수단들로서 일종의 ‘idea’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살림살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실재가 ‘탈인간화’의 과정으로 접어든다는 말은, 예를 들어, ‘경제’에 있어 특정 경제 모델에 따라 ‘돈’이 주인 행세를 하여 사람을 노예로 만들 때, 곧 단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비용을 줄이는 길로 나아가고, 그 결과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 그 존엄에 반하는 삶의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같은 경제 모델은 경제의 본래 성격(본성)인 ‘(물질적) 살림살이’에서 일탈한 것으로서, 이는 곧 그 정의(定義)상 ‘불의’한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재가 ‘탈인간화’의 과정으로 접어든다는 말은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뜻인데, 그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역량이 부족한 ‘약자’ 또는 ‘약한 분야나 지역’부터 차례차례 죽음으로 내몰고,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을 식별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이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그 약자에 관해 ‘창조 세계’ 곧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에까지, 또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그 범주를 확장한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특히 ‘이민과 난민’에 주목한다. 하느님의 계획과 자비와 카리타스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언제나 펼쳐지지만, 특히 ‘약한 존재’와 ‘약한 분야나 지역’ ‘하느님의 창조물’에, 말하자면, ‘꼴찌’에 시선을 보내고 움직여 다가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따르는 교회의 사회교리에서는 ‘사회적 약자 최-우선성의 원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사회정치 차원의 카리타스’로 확장하여 강조한다.

“카리타스의 실천은 자선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들에 대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의 관계로 끊임없이 되돌아간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간추린 사회교리」, 184항).

시대의 징표를 탐구한다는 데에는 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시대정신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것, 선한 정신의 움직임에 투신하는 것, 악한 정신의 움직임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여기서 ‘시대정신’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란, 예를 들어, 이 시대의 병고로서 이른바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과 다수의 빈곤화라면, 이때 시대정신은 ‘정의’ 특히 ‘분배 정의’로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선한 정신의 움직임(정치, 경제, 문화생활)에는 합류해야 하고, 그것을 거슬러 부의 독점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할 것이다.

위의 세 문헌의 목차만 살펴보다라도, 교종이 식별한 시대정신, 선한 정신의 움직임, 그리고 악한 정신의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5.2.2. 프란치스코 교종의 ‘복음의 빛으로 밝혀 해석하기’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교회의 내적 쇄신을 권고하고 있어, 문헌 전체가 ‘복음’의 빛에 비추어 교회 안팎을 살피면서 ‘복음화’의 책임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만 소개한다. 우리 교회의 사목에 있어 여전히 낯설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고는 ‘케리그마, 신앙고백, 하느님 나라’와 ‘사회적 약자, 사회, 공동선과 평화’의 불가분성을 가르치고 있다.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176항]

I. 공동의 차원에서 또 사회의 차원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케리그마 [177~185항]

신앙고백은 사회에 헌신(투신)함으로써 실현됩니다[178~179항]

하느님 나라는 세상(사회)에 도전합니다[180~181항]

사회가 제기하는 물음에 교회는 답해야 합니다[182~185항]

II. 사회 안에 포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186항]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187~192항]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193~196항]

하느님 백성 안에서 사회적 약자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197~201항]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경제와 소득분배[의 왜곡]에 있습니다 [202~208항]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배려(관심)는 정의의 요구입니다 [209~216항]

III.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공동선과 평화[217~221항]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합니다[222~225항]

일치는 갈등을 압도합니다[226~230항]

실재들은 관념들보다 중요합니다[231~233항]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합니다[234~237항]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성’과 ‘신앙’이 충분히 양립하여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종교와 과학(사회과학, 인문 과학, 자연과학)에 더 풍부한 결실을 맺으므로, 통합의 생태의 길로 나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선의의 모든 이에게 발표한 이 문헌에 왜 믿는 이들의 확신을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 철학의 영역에서 창조주라는 개념을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그 개념을 정치 및 철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에 따라서 온전한 생태와 충분한 인류 발전을 위하여 종교가 풍부하게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결말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들을 단순히 묵인될 수 있는 일종의 하위문화쯤으로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과 종교는, 실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고유한 접근법(신앙의 빛과 이성의 빛)을 갖고서, 양쪽 모두에게 풍부한 결실을 내는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62항).

제2장 창조의 복음[62~100항]

- I. 신앙이 비추는 빛[63~64항]
- II. 성경이 담고 있는 지혜[65~75항]
- III. 우주의 신비[76~83항]
- IV. 창조의 조화 안에 있는 각 창조물의 메시지[84~88항]
- V. 우주적 친교[89~92항]
- VI. 재화의 공동 목적[93~95항]
- VII. 예수님의 눈길[96~100항]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종은 루카 복음 10장 25~37절의 말씀을 소개한다. 비록 ‘성경’의 말씀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매력적일 것이라

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이 문헌에서는 ‘이민과 난민’을, 또는 가난한 나라들까지도, 혈육으로(형제 관계) 또는 ‘이웃 나라’로 여겨 사회적 우애,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카리타스를 실천함으로써 ‘인류 가족’, ‘세계 공동체’, ‘열린 세계’를 건설하자고 초대한다.

“앞의 제1장을 오늘날 문제들에 대한 냉정하고 초연한 서술(敘述)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이며,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 제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시도에 있어, 또 몇몇 행동 노선들을 제안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한 장(章)에 걸쳐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회칙이, 그 종교적 신념들과 무관하게,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이지만, 그 비유는 우리 가운데 누구나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56항).

제2장 길 위의 나그네[56항]

배경[57~62 항]

길가에 버려진 사람[63~68 항]

굶임없이 다른 형식으로 듣는 이야기[69~71 항]

이야기의 등장인물들[77~76 항]

새로 시작하기[77~80 항]

국경이 없는 이웃들[81~83 항]

나그네의 탄원[84~86 항]

5.2.3. 프란치스코 교종의 ‘이성의 빛으로 밝혀 해석하기’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종은 아래의 원리들이 공동선과 평화의 실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원리를 설명할 때, ‘복음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평화, 정의, 형제애(연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인민’을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은 네 가지 원칙에 의존합니다. 이 원칙들은 모든 사회적 실재 안에서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갖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교회의 사회교리 기둥들(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 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회교리의 기둥이 되는 이 원리들은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준거”로 이바지합니다. 그 원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이제 사회생활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공동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차이들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원칙들 네 가지를, 하나의 인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특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이 각 나라 안에서, 또 전체 세계 안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참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221항).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176항]

III.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공동선과 평화[217~221항]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합니다[222~225항]

일치는 갈등을 압도합니다[226~230항]

실재들은 관념들보다 중요합니다[231~233항]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합니다[234~237항]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생태(인간과 사회와 창조 세계) 위기의 ‘인간적’ 원인, 곧 현세 사물(정치, 경제, 문화 및 과학)에서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합리적 원인(예를 들어, 개체주의, 상대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등을 문화적 배경으로 삼은 ‘기술주의 패러다임’)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그 극복을 위한 교회의 ‘사회 원리와 가치’를 제시한다.

제3장 생태 재앙의 인간적 뿌리들[101~136항]

I. 과학 기술: 창의성과 권력(힘)[102~105항]

II. 기술주의 패러다임의 세계화[106~114항]

III.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재앙과 결과[115~121항]

실질적 상대주의[122~123항]

고용을 보호할 필요[124~129항]

생물학의 새로운 과학 기술들[130~136항]

제4장 통합 생태[137~162항]

I. 생태의 (자연) 환경, 경제, 사회 요소[138~142항]

II. 생태의 문화 요소[143~146항]

III. 생태의 일상생활 요소[147~155항]

IV. 공동선 원리[156~158항]

V. 세대들 사이의 정의[159~162항]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제1장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과 ‘열린 세계’(제3장), “사회적 우애의 실천에 기반한 세계적 형제애(보편적 형제 관계)의 공동체”(154항)는 대조 세계다. 그 열린 세계(국제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 그리고 구체화할 세계 차원의 기구와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카리타스 실천과 그 토대로서의 건전한 ‘문화’의 증진을 제안한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기[87항]

우리 자신들을 넘어서 나아가기[88~90항]

사랑의 고유한 가치[91~94항]

언제나 더 열려있는 사랑[95~96항]

모든 이를 통합하는 열린 사회들[97~98항]

보편적 사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들 [99~100]

“공동 경영자들”의 세계를 넘어서[101~102항]

(억압으로부터) 자유, 평등, 형제애[103~105항]

사람(인격)들을 들어 높이는 보편적 사랑[106~111항]

도덕적 선을 들어 높이기[112~113항]

연대의 가치[114~117항]

재산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118~120항]

국경이 없는 권리들[121~123항]

인민들의 권리들[124~127항]

제4장 전체 세계에 열려있는 마음[128항]

국경과 그 한계[129~132항]

호혜적 재능들(선물들)[133~136항]

효과적인(풍성한) 교류[137~138항]

다른 이들(사람, 가족, 지역, 나라 [···])에 열려있는 무상성

[139~141 항]

국부(局部, 지역)와 전반(全般, 전체)[142항]

지역의 품미[143~145 항]

보편(일반)적 지평[146~150 항]

우리 자신의 지역(범위)으로 시작하기[151~153 항]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154항]

대중주의와 자유주의 형태들의 정치[155항]

대중주의자에 맞서는 대중(민중, 인민)[156~162 항]

자유주의적 접근법들의 이점들과 한계들[163~169 항]

국제적인 힘(권력)[170~175항]

사회·정치적 카리타스[176항]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177~179 항]

정치적 사랑[180~182 항]

실효적인 사랑[183~185 항]

정치적 사랑의 행사(발휘)[186항]

사랑에서 생기는 헌신[187~189 항]

통합하고 일치시키는 사랑[190~192 항]

결과들을 능가하는 충만함(완성)[193~197항]

5.2.4. 프란치스코 교종의 ‘대화’의 초대’

신앙과 이성(眞理)은 참 진리(Truth)를 향해 나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의견의 일치(consensus)와 사회적 이해관계와 진리는 정직한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176항]

IV.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교회외] 사회 차원의 대화[238~241 항]

신앙과 이성(眞理)과 학문(과학) 사이의 대화로 평화실현에 이바지합시다
[242~243 항]

교회 일치의 대화로 인류 가족의 일치와 평화에 이바지합시다
[244~246 항]

유대교와 관계[247~249항]

종교들 사이의 대화[250~254항]

종교 자유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차원의 대화[255~258항]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제5장 접근과 행동 노선들[163~201항]

- I. 환경에 관한 국제 공동체의 대화[164~175항]
- II.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176~181항]
- III. 의사결정에서의 대화와 투명성[182~188항]
- IV. 인간적인 성취를 위한 대화에서의 정치와 경제[189~198항]
- V. 과학(학문)과 대화하는 종교들[199~201항]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제6장 세계 안의 대화와 우애[198항]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199~202항]

함께 건설하기[203~205항]

합의(의견일치)의 토대[206~210항]

합의(의견일치)와 진리[211~214항]

새로운 문화[215항]

문화가 되는 만남[216~217항]

다른 이들(다른 것들)을 용인(容認)하는 기쁨[218~221항]

친절을 되찾기[222~224항]

권고와 회칙들에서 말하는 ‘대화’는 어디까지나 ‘사회와 공적 차원의 대화’다.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는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의 현안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생태 재앙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든 형제들」에서는 ‘세계적 현안, 특히 세계 정치와 경제의 현안’ 등을 대화의 주제로 제시하면서, 그 대화에 가까이 참여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교회의 경우, ‘선의의 사람들’과 ‘무엇’을 주제로 대화해야 하는지, 그 대화에서 ‘무엇’을 경청할 것인지, 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참된 대화에는 ‘공동의 언어와 문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균형’과 ‘재화의 분배’라는 현안을 놓고 대화

할 경우를 상상해보라. 신앙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에서 함께 ‘소통’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교회는 이를 ‘사회 원리들과 가치들’이라 한다. 곧 교회의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와 그 사용의 권리’을 경제 분야의 언어로는 ‘공공재’라 한다. 사회적 가치로서 교회가 ‘정의’를 말한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이를 ‘공정한 분배’라고 한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문법’이 있기에, 교회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복음화의 도구”(「간추린 사회교리」, 2항)라 한 것이다.

5.2.5. 프란치스코 교종의 ‘건전한 영성’

참된 대화를 위해서는 두 태도가 요구된다. 대화 참여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성’을 향한 대화 참여자들의 개방성과 용기도 요구된다. 특정 사회 현안에 관한 대화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현안과 관련한 ‘정보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문헌들을 통해 교종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그리스도교적 신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힌다.

“사제들은 언제나 더 높은 저 성덕을 향하여 매진하고,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봉사하는, 날로 더욱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사제품」, 12항).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제5장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화 활동가[259~261항]

I. 쇠신된 추동력이 필요한 복음화 사명 수행[262~263항]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264~267항]

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영적 향기를 되찾읍시다[268~274항]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활동을

신뢰합시다[275~280항]

중재의 기도(轉求)는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힘입니다[281~283항]

II. 마리아, 복음화의 어머니[284항]

마리아는 당신 백성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285~286항]

마리아는 새 복음화의 별입니다[287~288항]

사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제6장 생태 교육과 영성[202~246항]

- I. 새로운 생활양식을 향하여[203~208항]
- II. 인류와 환경 사이의 계약에 대해 교육하기[209~215항]
- III. 생태의 전환[216~221항]
- IV. 기쁨과 평화[222~227항]
- V. 시민적(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사랑[228~232항]
- VI. 성사의 표지들과 휴식의 거행(섬의 기념)[233~237항]
- VII. 삼위일체, 창조물 사이의 관계[238~240항]
- VIII. 모든 창조(삼라만상)의 여왕[241~242항]
- IX. 태양 너머에[243~245항]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제7장 새로워진 만남의 경로들(오솔길들)[225항]

- 진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기[226~227항]
- 평화의 예술과 건축술[228~232항]
 -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시작하기[233~235항]
- 용서의 가치와 의미[236항]
 - 피할 수 없는 갈등[237~240항]
 - 적법한 갈등과 용서[241~243항]
 - 계속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244~245항]
- 기억(기념)[246~249항]
 - 용서하지만 잊지 않기[250~254항]
- 전쟁과 사형[255항]
 - 전쟁이라는 불의[256~262항]
 - 사형[263~270항]

제8장 우리 세계에서 형제애의 직무를 위한 종교들[271항]

- 궁극의 기초[272~276항]
 - 그리스도교 정체성(독자성)[277~280항]
- 종교와 폭력[281~284항]
 - 하나의 호소[285~287항]

6. 마치며

요한 23세 교종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다시 인용한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의 두드러진 취지는 교회의 기본적 교의의 이런 저런 구절을 놓고 토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의들은 이미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가 이미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 트렌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힌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가르침을 새롭게, 침착하게, 또 고요하게 고수(固守)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하여 [...] 참된 ‘교의의 침투’(a doctrinal penetration)와 ‘의식의 형성’(a formation of consciousness)을 향해서 —[이를 ‘복음화되고 복음화하는 교회’를 향해서라 할 수 있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의는 근대의 연구 방법론과 문학적 양식으로 연구·해설[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저장소’(the deposit of faith)에 있는 오래된 교의의 본체(substance)와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인내를 갖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가르침의 권위’(a magisterium)의 형태와 몫으로 판단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성격에 있어 탁월할 정도로 ‘사목적’입니다.”

“보편 공의회의 가장 큰 관심은 그리스도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교의(the sacred deposit of Christian doctrine)를 더 유효하게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의는 몸과 마음을 지닌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목’이란 ‘교의’를 제시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 특히 ‘인간’(인간, 사회, 인간관계)에 관한 교의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16개 문헌, 특히 그 가운데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간추린 사회교리」,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의 세 문헌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은 모두 ‘교의의 침투’와 ‘의식의 양성’의 길을 밝힌 ‘사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가 놓여 있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여 그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다.

공의회 이후, 그동안 보편 교회는 그 사목의 길에서 몇 걸음을 옮겼을까? 우리의 ‘사목’을 성찰하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프란치스코 교종은 ‘새로운 환경’으로서 ‘세계화’ 현상과 ‘생태의 위기’가 함의하는 지점까지 걸었다.

환원주의(reductionism)는 생물학(생명 현상을 물리학적·화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과 논리학(복잡한 데이터·현상을 단순하게 환원하려는 이론)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사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사목의 환원주의’(pastoral reductionism) 현상도 가능할 것이다.

만일 우리 교회가 ‘사목’ 곧 ‘교회의 본체’를 사람과 사회에 침투시켜 그 의식의 양성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겠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네 현장, 「거룩한 공의회」, 「인류의 빛」, 「하느님의 말씀」, 「기쁨과 희망」 가운데 「거룩한 공의회」와 「하느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지만 수용하고,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은, 의도했던 아니든, 간과하고 있다면, 사목의 ‘환원주의’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추론하게 된다. 우선, 요한 23세 교종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간추린 사회교리」,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의 세 문헌(「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은 잘못된 길을 밟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경우다. 다음으로, 전자(前者)는 정도를 밟았지만, 후자(後者)가 정도를 벗어났거나, 아직 발걸음을 떼지 않은 경우다.

마지막으로, 그도 저도 아니라면 ‘전체(全體)는 부분(部分)보다 위대하다’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원리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복음의 기쁨」, 234-237항 참조). 곧 지상(地上)의 보편 교회든 한국 천주교

회든 그저 ‘전체’의 부분들에 불과하고, 또 그 부분들이 비록 ‘오류’(誤謬)의 길을 걷는다고 간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면(多面)의 한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목의 환원(축소)주의를 생각할 필요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 사회 차원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복음화 사명이 지닌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언제나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76항).

“교리교육과 말씀의 가르침은 실존의 사회적 의미에 관해, 영성의 형제적 차원에 관해, 각각의 인간에게 부여된 그 양도 불가한 존엄을 향한 우리의 확신에 관해, 또 모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려는 우리의 논거에 관해 더 직접적으로 또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모든 형제들」, 87항).

전시(戰時)도 아닌데, 말하자면 “행복한 환경”에서 밭에 보물을 숨길 이유는 없다(마태 13:44 참조).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가 찾아낸 그 보물을 “우리 시대의 오류들, 요구들 기회들을 고려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비범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사목’일 것이며, 마땅히 그 사목은 우리 교회의 임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강력한 권고”에 충실하여, “교회의 내적 쇄신과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대화라는 사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날로 더욱 적절한 도구”(사제의 교역과 생활에 관한 교령, 「사제품」, 12항) 되려 한다.

국문초록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익숙한 용어들 가운데 ‘사목’과 ‘복음화’가 있다. 하지만 보편 교회가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목’과 ‘복음화’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목’과 ‘복음화’와 그 표현들은 같으나 의미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질’(質)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몇몇 중요한 요소를 누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과하거나 누락시켰고, 결과적으로 ‘사목’과 ‘복음화’를 ‘축소’ 또는 ‘환원’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빛을 단단한 용기 안에 가둬 두게 되었고, 교회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또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쇄신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

▶ 주제어: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프란치스코, 사목과 복음화, 교회와 세상